

문화광장



홍 정 호
작곡가

작곡가로서 꿈만 같은 일이 필자에게 찾아왔다. 오스트리아 음악 출판사 유니버설 에디션(Universal Edition)의 예술위원회 심사를 거쳐 아티스트로 합류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2025년 표선원드오케스트라(감독 강훈)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위촉 작곡한 '아리랑 No.1'을 유니버설 에디션에 제출한 지 약 8개월 만의 결과였다.

제주에는 늘 '자연이 아름다운 섬', '문화의 섬'으로 불린다. 반면 창작자의 입장에서 섬은 동시에 고립의 공간이기도 하다. 물리적으로

섬의 창작자는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

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구조적으로는 유통과 교류의 중심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 섬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오며 늘 마주해 온 질문은 단순하다. 이 작업은 과연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

세계적인 음악 출판사 유니버설 에디션을 통해 작품을 국제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이 질문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구조의 문제로 다가왔다. 1901년 빈에서 설립된 유니버설 에디션은 오스트리아 음악 시장을 자국 출판으로 구축하고, 고전과 교육용 음악을 기반으로 하되 당대의 새로운 음악 언어까지 책임지기 위해 출범한 출판사다. 이후 말러, 쇤베르크, 바르토크 등 20세기 음악사의 전환점을 만든 작곡가들의 작품을 기록하고 유통하며, 이미 검증된 음악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담은 음

악을 선택해 온 출판사로 자리 잡았다.

국제 음악 출판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며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세계는 생각보다 가까웠지만, 동시에 매우 냉정했다. 작품은 지역을 이유로 평가받지 않는다. 다만 그 작품이 어떤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언어가 동시대와 소통 가능한지만이 남는다.

섬은 늘 경계에 있다. 바다와 육지 사이, 고립과 개방 사이, 전통과 현재 사이에 서 있다. 이 경계성은 창작자에게 고유한 질문을 던진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러나 철학만으로 창작은 지속되지 않는다. 섬의 창작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고독이 구조로 굳어질 때다. 작품을 발표할 무대, 기록할 시

스템, 다시 불려낼 유통의 경로, 즉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부족할 때 창작은 개인의 소진으로 끝난다. 많은 지역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사라지는 경험'을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예술 정책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다. 섬의 창작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창작이 섬 안에서만 맴돌지 않고, 다른 섬과 대륙, 다른 언어와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정책의 역할이어야 한다. 세계와의 문화예술 교류는 더 많은 행사가 아니라, 더 오래 남는 경로를 찾는 것이다.

섬에서 태어난 창작이 섬을 넘어 세계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순환의 구조, 그것이 진정한 '문화의 섬'을 만드는 조건 중 하나일 것이다.

사설

4·3행불자 신원 확인, 유족 채혈참여 절실

경북 경산시 옛 코발트광산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된 곳이다. 이곳에서 제주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2025년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4·3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 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도의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2명이다. 도의 신원확인 희생자는 대구형무소 희생자들이 학살된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견된 유해에서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또 대전 골령골에서 발견된 유해 중 추가로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도내에서는 2007년과 2009년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당시 제주도에는 형무소가 없어서 군사재판에서 징역형

을 선고받은 4·3수형인 2530명은 전국 15개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다. 희생자의 신원 확인은 직계는 물론 방계 유족의 채혈과 유전자 감식으로 밝혀졌다. 조카의 채혈이나 손자와 외손자의 채혈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도내 4·3 행불자 유해는 그동안 총 419구가 발견됐지만 272구는 아직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올해도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을하게 스리저간 수많은 희생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고 구천을 맴돌고 있다. 이들이 가족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족들의 적극적인 채혈참여가 절실하다. 또 4·3관련 유관기관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516도로 논쟁, 이름보다 역사 인식이 중요

제주자치도가 '516도로' 명칭 변경을 놓고 공론화에 착수했다. 오는 30일 농어업인회관에서 '516도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1차 토론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상징이라는 문제 제기를 계기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시도하겠다는 취지지만, 도로 이름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역사 인식의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도로와 지명은 시대적 산물이다. 좋은 삶든 그 이름에는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 현실이 담겨 있다. '516도로' 역시 마찬가지다. 군사 쿠데타라는 부정적 역사와 연결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주장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명칭을 변경한다고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픈 역사일수록 더

기억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태도다. '516도로' 명칭을 유지한다고 해서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에도 '516도로' 명칭 변경 논의가 있었지만, 이해관계자 다수는 현실적 불편과 혼란을 이유로 유지 의견을 냈다. 역사를 대하는 바른 태도는 지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데 있다. 이름을 바꾸는 대신, 그 명칭이 가진 역사적 배경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는 안내와 교육이 병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516도로' 명칭 변경 논의는 감정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과거를 정리하려는 접근은 역사의 빈곤을 드러낸다. 역사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르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열린마당

제주도 도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김 정 옥
제주도 건설과

큰 역할을 했다. 같은 시기, 해안을 한 바퀴 도는 일주도로도 완성돼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이 빨라졌다.

이후 제주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제주의 도로구축까지 도로망이 개설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제주의 도로 총 길이는 약 2646km이며, 이 중 95% 이상인 2538km가 포장돼 있다. 도로망은 총 4개로 구성되는데 번영로, 남조로 등 2개 노선으로 이뤄진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도 이전 국가에서 관리하던 5·16도로, 일주도로 등 구국도 5개 노선을 포함한 지방도 16개 노선, 애월~신촌 및 상항~위미를 잇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2개 노선이 있다. 이외에도 시도(市道) 2157개 노선이 있다.

도로 개설의 역사는 곧 제주의 발전사이며,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의 수단이었다. 앞으로도 제주도의 도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되길 바란다.

뉴스-in

후쿠오카 관광객 유치 기대감 피력

오 지사, 일 방문 성과 공유

○...오영훈 지사가 지난 22~25일 일본 후쿠오카현과 사가현을 방문하고 도쿄 재일동포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성과를 공유하면서 지난해 12월 22일 6년 만에 재개된 제주~후쿠오카 직항 노선에 따른 관광객 유치 기대감을 피력.

오 지사는 26일 주간혁신성장 회의에서 “후쿠오카현 관광기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 관광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지 캠페인이 적시에 잘 이뤄졌다”고 평가.

이와 관련 제주도는 현지 공항 슬롯 확대와 출발 시간대 조정을 검토하는 한편 2월 여행업 전시이며,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의 수단이었던 제주도의 도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생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크게는 위성통신, 작게는 유선망, 무선망, 광통신망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압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